

# 구강 불결·흡연·음주가 원인... 치료시기 놓치면 치명적

## 암 바로 알기 구강암

박준희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20대 사회 초년생때부터 흡연을 시작한 40대 회사원 최모씨는 최근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진력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바로 혀에 생긴 구강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두 달전부터 혀에 생긴 궤양을 구내염으로 알고 방치하다 진단이 늦어진 것이다.

◇후유증이 무서워 암=구강암은 혀·잇몸·입술·입천장 등 입안에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설(혀)암이 대표적으로 발생 장소에 따라 구순암, 설암, 구강저암, 협부암, 잇몸암, 후구상악암 등으로 분류된다. 국내 구강암 환자는 전체 암 환자의 2%수준이다. 하지만 후유증이 무서다. 발병 부위가 구강인 특징 때문에 발병 시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것은 물론 발음이나 호흡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음식물을 씹어 먹는 저작기능이 떨어지고 얼굴이 변형될 수 있다. 실제 구강암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발병 5년 이내 사망률이 56%로 치명적이다.

전체 암 환자의 2%지만 후유증이 무서워 예방과 치료가 중요해 구내염 3주 지속 뎀 검사해

구강암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지목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흡연과 음주이다. 그래서 40대 이상, 60대 미만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병한다. 특히, 구강암 환자 중 74%는 흡연자일 정도로 흡연과의 연관관계가 명확하며, 음주까지 더해지면 발병할 위험이 15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유전이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불결한 치아 위생 상태도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혀나 볼 점막, 입천장, 입술 등 구강 내에 발생하는 궤양은 구내염 같은 증상이 가장 많다. 대부분의 단순 구내염은 1-2주일 정도 지나면 심한 통통이 사라지고 궤양이 없어지지만, 이런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조직검사 등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 목에 혹이 만져지는 증상이 3주 이상 되거나 구강 점막의 적색, 혹은 백색 반점이 생긴 경우 일시적인 증상일 가능성이 높으나, 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진

료를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입 안에 하얗게 백태가 끼거나 붉으스스한 혀바늘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더 주의해야 한다.

◇초기 암은 통증 없는 경우 많아 주의해야 먼저 혀에 생기는 설암은 혀 바닥이 하얗게 변하는 백반증을 동반한다. 일반적인 백태는 칫솔 등으로 문지르면 없어지지만, 백반증은 그렇지 않다. 실제 백반증의 5-10%는 구강암으로 진행된다. 피부 점막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홍반증은 백반증보다 암으로 진행된 비율이 3-4배 높다. 또한 초기 암의 경우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통증의 유무가 구강암의 증상과는 반드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이유다.

구강은 입만 벌리면 잘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쉽게 검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강암이 의심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진단은 국소마취 하에 입 안의 병변을 조금 절제해 진단하는 조직검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최선의 치료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일반 엑스(X)-선 검사, 초음파검사,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핵의학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의 많은 영상진단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구강암 치료의 일차적인 목적은 암을 제



박준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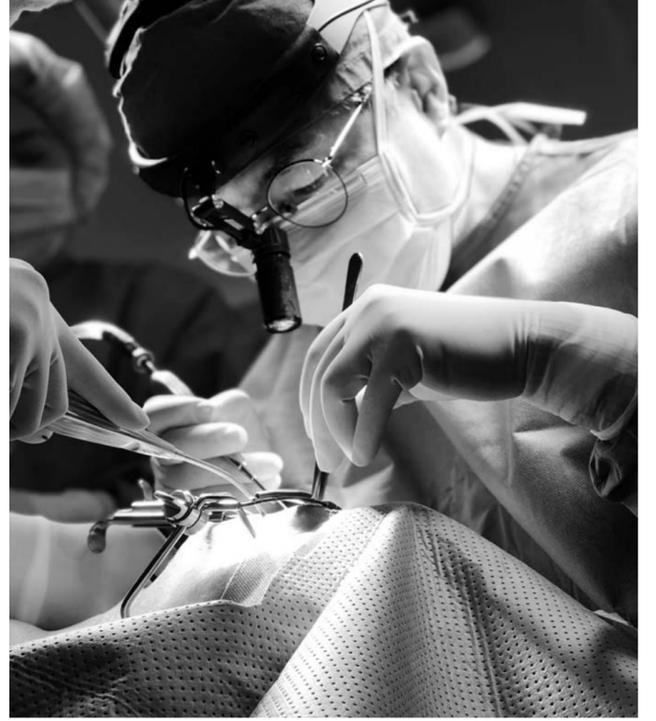
거하고 재발률을 낮추어 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구강 내 기능과 얼굴 외형의 변형도 최소로 하고 음식을 먹고, 삼키고, 말하는 기능 등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 암인 경우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의 완치율이 비슷하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기능 장애가 거의 없고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보다는 수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다.

진행된 암의 경우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용해 치료하는 것이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종양만 절제하지 않고 1-2 cm의 안전역을 두고 정상조직을 함께 제거하며, 구강암에 자주 동반되는 경부림파선 전이의 치료를 위하여 대부분 경부정소술을 함께 시행한다.

박준희 교수는 "구강암은 예방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초기에 발견 될수록 기능 장애도 최소로 하면서 완치될 수 있다. 입안의 궤양이나 목의 혹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꼭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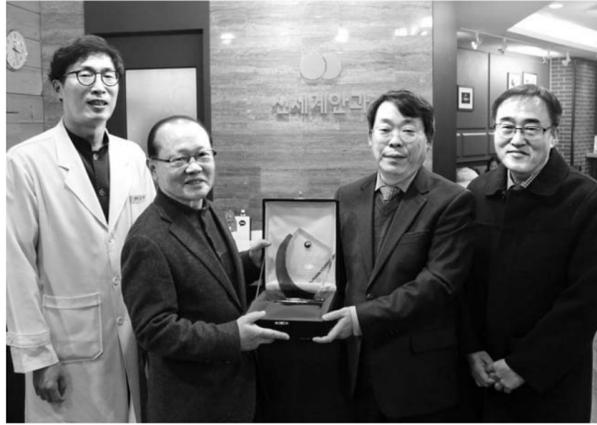


박준희 교수가 구강암 환자의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 병무청, 광주 신세계안과에 병역 이행자 무료치료 감사패

### 9명에 시력교정술 지원

광주 신세계안과(명예원장 박영걸·왼쪽에서 두번째)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현역 입영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료를 해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병무청(병무청장 기찬수)으로부터 '무료치료 후원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감사패 수여는 신세계안과가 광주·전남 지방병무청과 '병역자진이행자 무료치료협약'을 맺은 후 6명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에게 수술을 지원해 현역으로 입대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지방병무청 중 가장 많은 입대 인원이다.

병무청의 '슈퍼 군견이 만들기 프로젝트'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병역판정검사서 시력이나 신장·체중으로 4급(사회복무요원),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청년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과 협약된 후원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광주신세계안과는 지난 2016년 7월 4급 판정을 받은 최모(23)씨를 시작으로 오는 16일 수술을 앞둔 주모(21)씨

까지 모두 9명에게 무료로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지원했다. 이 중 6명은 이미 현역으로 입대했으며, 2명은 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여만원에 달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김수관 교수 '2018년 올해의 치과인상'

난임수술 지원대상 확대 월 소득 510만원 부부까지

조선대학교 김수관 대외협력처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 '2018년 올해의 치과인상'을 수상한다.

김수관 교수는 1989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꾸준한 연구활동을 통해 치과치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평소 나눔과 선행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치과계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치과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공헌했다.



김수관 교수

이와 함께 김 교수는 5개의 전국 규모 학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9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교육복지부문 지역혁신가'상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김 교수는 올해의 치과인상 상금(1000만원)을 해외 빈곤아동 지원사업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이태희 보라안과병원장 취임... 녹내장·백내장 진료 담당

보라안과병원은 전남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남대병원 안과에서 녹내장 전문의로 활동한 이태희 원장이 최근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태희 원장은 한국녹내장학회 정회원이고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정회원이며 보라안과병원에서는 녹내장, 소아안과, 백내장 등의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이태희 원장

보라안과병원은 보건복지부인증의료기관으로서 망막, 시력교정, 녹내장, 백내장, 안성형, 사시, 소아안과 등 각 분야별 8인의 전문의가 진료에 나서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 원대인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합쳐 총 10회 수술비를 지원하고, 착상유도제와 배아동결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수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중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난임수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국내 가구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한다.

지원항목 역시 확대됐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